

“성령의 능력으로”

Acts 2:1-4

2020 년 5 월 31 일 성령 강림 주일

고석천 목사

예수께서 승천하신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봄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날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불의 혀같은 것들이 나타나 기도하던 사람들위에 임했습니다. 120 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 등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방인들 중 고넬료와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나 구경꾼들 모두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2: 28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사도행전은 28 장이 마지막 장인데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입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갱신을 추구 할 때나 새로운 신앙 운동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문도 특출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나 배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위나 권세도 없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능력있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쓸만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시험을 이기고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충만함을 받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을 세가지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성령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청중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루에 3 천명이 회개한 날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하며 위협했습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 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4: 8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원들은 더욱 불안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헐박을 했습니다. 행전 5: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나니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6

얼마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에 갔으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내려가 개종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크게 임하고 복음이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하고 더욱 간절히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게 합니다.

(2)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2 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성령충만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읽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이익단체나 취미클럽과 다릅니다. 그런 모임에는 수준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쉬워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 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기도가 힘들어 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면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체
5 분이 안됐습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군들을 뽑을 때 기도했습니다. 박해 가운데 주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의 철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험한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죽음의 위협에서 기도할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읽기가 재미있습니다. 성경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읽고 또 읽고
싶어집니다. 성령충만하면 교회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랑합니다.

교회는 성령충만한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우들이 몇명만 있으면 목회가 쉬워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힘들어 집니다. 목사만 고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성령은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은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사명을
감당할힘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앞이 캄캄하고 망막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 장에 구제하는 일로 큰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구제받는 일에 차별을 받는다고 큰 불평을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7 명의 집사를 세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 지자 믿는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3 장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교우들이 늘어났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안디옥교회로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두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에 큰 전도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 장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여행하려 드로아 까지 내려갔으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기 지역에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를 위시해 데살로니카 보뢰아 아덴 고린도 까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사가들은 사도행전 16 장이 기독교 역사를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되었고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되게한 결정적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알았으나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고통을 당하고 미국 뿐아니라 세계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 개월 동안 꿈작 못하고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도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고 감당키 어려운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십니다.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자로서 담대히 사십시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